

예방접종 전면중단,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진반 의견)

양돈가 의견 충분히 반영 후 결정해야

이제 한달 후면 돼지콜레라 예방약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질 것인지,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 인가? 불안, 초조, 긴장 아니면 해방감...

1. 콜레라 박멸과 수출

돼지고기 수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배웠다.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물론 일본으로의 수출 이외에도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양돈산업의 재편과 많은 어려움을 어느 기간 감수해야 한다. 물론 수출에 너무 의존하는 양돈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가능할 것이다. 만약에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가 재발생하고, 이로 인해 다시 수출이 중단될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서 말이다.

예방접종 중단을 연기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다시 콜레라가 발생하면 피해의 보상 등이 불안해서 접종중단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출중단이 길어지면 안되겠다는 생각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한다. 언제까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계속하고 또 수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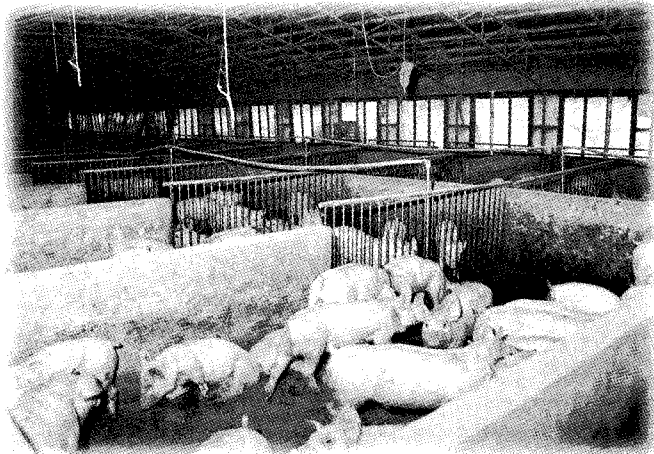


정 현 규 수의학박사
도드람양돈협동조합 상무



▶이번의 선택이 우리의 양돈산업구조를 완전히 바꿀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앞장서지 않으려 할 것이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콜레라 예방접종에 대한 의견은 양돈협회, 조합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부와 전문가집단이 결정해야 할 것이다.



가? 이런 선택의 시점에서는 항상 대립과 불만, 결단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번의 선택이 우리의 양돈산업구조를 완전히 바꿀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앞장서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익을 보는 측도, 피해를 보는 측도 양돈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정에 임해야한다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양돈협회와 관련단체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2. 예방접종 중단에 대한 일본 전문가 의견의 경우

지난번에 일본수의사회의 초청으로 일본의 콜레라 현황을 돌아 볼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질문한 첫 내용은 빠른 박멸을 위해서 왜 예방접종을 중단해야 하는가? 였다. 어쩌면 너무도 상식적인 질문이지만 다시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였다. 나의 질문에 그들의 대답은 너무도 간단하고 확실하였는데, “예방접종

을 중단해야 콜레라바이러스가 숨었는지 어는지 알 것이 아닌가. 바이러스가 다 죽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 살아있다면 어디 숨어있었는지를 찾아내 확실히 없애려면 예방접종 중단을 해야되는게 아닌가” 라는 것 이었다. 만약 우리가 수출을 계속하기로 결정한다면 해답이 나와있다. 무조건 일본보다 앞서거나 같은 시기에 콜레라청정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고, 예방접종도 비슷하게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출보다는 당분간 내수에 치중하자면 좀더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된다.

3. 나의 의견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콜레라예방접종에 대한 의견은 양돈협회, 조합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부와 전문가집단이 결정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결정하면 예방접종을 중단하는 것에 찬성을 하고있고, 예방접종 중단 후의 만약의 피해를 대비하는데 적극적인 힘을 합할 각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충분한 토의 특히 양돈가들과의 대화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예산문제와 작전이 필요하다는 점은 기본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 구제역, 오제스키병, 지금까지 콜레라 박멸활동을 해온 일에 비추어 방역본부, 방역요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리라고 생각되어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가지도록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양돈

특집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문제점은 없는가?